

# 학생부, 무엇이 적히나

규정이 정한 열 칸과 대입에 가는 칸

- ◆ 이 책은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공개된 요강·공시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 무엇이 들어 있나

### 학생부에는 무엇이 적히나

열 칸의 지도와 칸마다 정해진 글자 수

### 대학이 실제로 읽는 칸

2024학년도부터 대입에 안 가는 것들

### 세특 — 규정이 정한 자리

무엇이 적히고 무엇이 금지인가

### 창의적 체험활동 세 칸

자율·자치·동아리·진로

### 독서·행동특성·출결

작아 보이는 칸들

### 적을 수 없는 것

상·대회·소논문·학원

### 언제 확인하고 어떻게 고치나

학년도가 끝나면 정정이 막힙니다

### 학년별 학생부 점검표

고1 · 고2 · 고3

## 44 · 차례

## 무엇이 어디에 있나

1. 01 학생부에는 무엇이 적히나 5
2. 02 대학이 실제로 읽는 칸 10
3. 03 세특 — 규정이 정한 자리 15
4. 04 창의적 체험활동 세 칸 20
5. 05 독서·행동특성·출결 25
6. 06 적을 수 없는 것 30
7. 07 언제 확인하고 어떻게 고치나 35
8. 08 학년별 학생부 점검표 40

CUBE

## 01 · 머리말

# 이 책을 왜 드리나

---

**저희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료입니다.**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정보는 넘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과 파는 말이 섞여** 있어서, 학부모님이 그것을 가려내는 데 시간을 다 쓰십니다. 그 상태로 상담에 오시면 **첫 시간을 오해를 푸는 데** 씁니다.

이 책을 읽고 오시면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과의 상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나눠 드리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책 곳곳에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원을 늘리지 마시라는 말, 이걸 상담 없이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 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자료라야 나머지 말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에는 출처를 달았고, 없으면 안 썼습니다.**

이 책의 숫자는 **공개된 모집요강·공시 자료·국가 통계**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각 편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자리는 **「저희 판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구분해 두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CUBE**

2026년 8월

## 02 · 먼저 읽을 것

# 학생부라는 열 칸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뒤 학생부의 무게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볼 수 있는 정보 안내는 거의 안 읽힙니다. 이 책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기재요령만 정본으로 삼았습니다. 학원 설명이나 기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알아 두시면 나머지가 쉬워지는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 칸마다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트는 과목마다 500자, 창체는 각 500자, 담임이 한 해를 보고 적는 행동특성은 300자입니다. 「많이 적어 주세요」가 성립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둘. 적혀도 대입에 안 가는 칸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수상경력·독서활동·자격증·자율동아리·개인봉사가 학생부에는 적히되 대입 전형자료로는 안 갑니다.

### 읽는 차례

| 편 | 무엇을 다루나  | 이 편의 물음              |
|---|----------|----------------------|
| 1 | 열 칸의 지도  | 무엇이 어디에 적히나          |
| 2 | 대입에 가는 칸 | 무엇이 안 가나             |
| 3 | 세트       | 규정상 무엇이 적히고 무엇이 금지인가 |
| 4 | 창의적 체험활동 | 세 칸이 어떻게 다른가         |
| 5 | 독서·행특·출결 | 작아 보이는 칸의 무게         |
| 6 | 기재 금지    | 왜 막아 두었나             |
| 7 | 확인과 정정   |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         |
| 8 | 학년별 점검표  | 고1·고2·고3에 무엇을        |

1·2편을 먼저 읽으시길 권합니다. 안 가는 칸에 시간을 쓰고 계신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 이 책이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적게 하고 있고, 학생부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자리는 「무엇이 적히는지 아시라」 까지입니다. 적는 것은 선생님이고, 만드는 것은 아이가 수업에서 하는 일입니다.

03 · 먼저 사실부터

열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를 처음 펼치면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칸이 많아 보이지만 열 칸이고,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열 칸부터 보시겠습니다.

| 칸  |             | 무엇이 적히나                     |
|----|-------------|-----------------------------|
| 1  | 인적·학적사항     | 이름·주소·학적 변동                 |
| 2  | 출결상황        | 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미인정·기타로 나눔 |
| 3  | 수상경력        | 교내상만                        |
| 4  | 자격증 및 인증    | 재학 중 취득한 것                  |
| 5  |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자치 / 동아리 / 진로 / 봉사       |
| 6  | 교과학습발달상황    |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7  | 독서활동상황      | 책 제목과 저자                    |
| 8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담임이 적는 종합 의견                |
| 9  | 학교폭력 조치상황   | 조치가 있는 경우                   |
| 10 | 기타사항        | 졸업대장번호·전공·사진                |

이 가운데 대입에서 실제로 읽히는 칸은 훨씬 적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것을 다룹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 04 · 칸마다 정해진 것

#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이 모르시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칸마다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칸            | 최대 글자수               | 단위   |
|--------------|----------------------|------|
| 자율·자치활동 특기사항 | 500자                 | 학년   |
|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 500자                 | 학년   |
| 진로활동 특기사항    | 500자                 | 학년   |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500자                 | 과목마다 |
| 독서활동         | 공통 500 ·<br>과목별 250자 | 학년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300자                 | 학년   |

맨 아랫줄을 보십시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300자다. 담임이 한 해를 관찰하고 적는 칸이 그만큼이다.

A4 한 장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 안에 한 아이를 담아야 합니다.

###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

선생님이 쓸 자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이 적어 주세요」는 성립하지 않는 부탁입니다.

적을 자리를 놓고 학생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500자 안에 들어갈 만한 것이 무엇인지가 실제 문제입니다.

참고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공통과목(공통국어·공통수학·공통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과학탐구실험)을 1·2 합산 500자 이내로 적는다.

출처: 17개 시도교육청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한글 기준 최대 글자수. 교육정보시스템은 Byte로 세며 한글 1자는 3Byte.

## 05 ·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학생부 I 과 학생부 II

학생부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둘이 있습니다.

| 무엇인가           |                            |
|----------------|----------------------------|
| 학교생활기록부 I      | 줄여 놓은 것 — 발급받으실 때 흔히 보시는 것 |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II | 세특과 특기사항이 다 들어 있는 것        |

전산에 넣는 내용은 같고 출력 서식이 다릅니다. 대학이 보는 것은 II입니다.

그러니 I 만 보시고 「우리 아이 학생부는 별거 없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II를 보셔야 합니다.

## 얼마나 남아 있나

학교생활기록부 I 과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II 가 있다. 전산 입력은 같고 출력 서식이 다르다. 준영구 보존하며 졸업 후 8년은 학교가 보관한다.

준영구입니다. 평생 남는 기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 누가 적나

규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사용자(교사)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해야 한다(제4조 제2항).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안을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안을 써서 드리면 됩니까」는 규정에 어긋나는 물음입니다. 선생님이 본 것을 적는 칸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4조·제5조·제18조. 발급 방법은 학교와 정부24 등에서 안내합니다.

## 06 · 그래서 무엇을

## 펼쳐 놓고 볼 차례

| 차례 | 무엇을              | 왜                   |
|----|------------------|---------------------|
| 1  | II를 받습니다         | I에는 세특이 없습니다        |
| 2  | 비어 있는 칸을 찾습니다    |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먼저입니다  |
| 3  | 세특이 과목마다 있는지 봅니다 | 과목별 500자 자리입니다      |
| 4  | 아이에게 읽혀 봅니다      | 본인 이야기인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

4번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잘 쓰였는지를 부모님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거 내 얘기 맞아」라고 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학생부를 처음 펼치실 때 여덟 가지

- ☐ 학생부 II 를 받았는가 ( I 이 아니라 )
- ☐ 칸이 열 개 인 것을 아는가
- ☐ 세특이 과목마다 있는가
- ☐ 창체 세 칸 이 다 채워져 있는가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 있는가
- ☐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 는 것을 아는가
- ☐ 아이가 자기 이야기로 읽는가
- ☐ 사실과 다른 자리 가 없는가

여덟째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학년이 끝나기 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학년도가 지나면 고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L7에서 다룹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학생부를 한 번도 안 보신 채로 고3을 맞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학기마다 한 번, 십 분이면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십 분을 어디에 쓰실지입니다.



## 07 · 자주 묻는 것

## 학생부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 Q. 학생부를 어떻게 받아 보나요?

학교에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II」라고 말씀하십시오.

I 과 II 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학생부요」라고 하면 I 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는 세특이 없습니다.

정부24 같은 곳에서도 발급이 되지만 서식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세특까지 보시려면 학교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난 뒤에 보시면 늦습니다.

## Q. 학생부 컨설팅을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학교생활기록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제20조의2)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라는 조언은 규정이 막아 둔 자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학생부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 읽어 드리는 일은 값이 있습니다. 그건 이 자료로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값을 치르시기 전에 이 여덟 편을 먼저 읽어 보십시오.

## 한 줄로 남기면

학생부는 열 칸이고 칸마다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이 보는 것은 II 이니 그것부터 받아 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 08 · 먼저 사실부터

## 적혀도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부에 적혀 있다고 대학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졸업생 포함) 적히기는 하는데 대입 전형자료로 안 보내는 칸이 생겼습니다. 여기를 모르면 헛수고를 합니다.

| 날말  | 뜻                          |
|-----|----------------------------|
| 미기재 | 학생부에서 아예 지운 것 — 칸 자체가 없습니다 |
| 미반영 | 학생부에는 적히되 대입 전형자료로 안 보내는 것 |

이 둘을 섞어 쓰는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 미반영인 칸은 학생부에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있다」인데 대학에는 「없다」가 됩니다.

학생부를 펼쳐 놓고 「이만하면 됐다」고 판단하실 때 이 칸들을 세고 계실 수 있습니다.

##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름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바깥에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것을 대입에서 빼겠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대회 입상, 자격증, 해외 활동, 소논문 — 돈과 어른의 손이 닿으면 달라지는 것들이 차례로 빠졌습니다.

그러니 이 표는 「무엇이 없어졌다」의 목록이면서 동시에 「무엇이 남았나」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남은 것은 대부분 수업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출처: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 참고자료. 졸업생도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같이 적용됩니다.

## 09 · 무엇이 안 가나

## 일곱과 셋

| 대입에 안 가는 것 (미반영) |               | 학생부에는 |
|------------------|---------------|-------|
| 1                | 수상경력          | 적힙니다  |
| 2                | 자율동아리         | 적힙니다  |
| 3                | 개인봉사활동 실적     | 적힙니다  |
| 4                | 진로희망분야        | 적힙니다  |
| 5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적힙니다  |
| 6                | 독서활동          | 적힙니다  |
| 7                | 영재·발명교육 실적    | 적힙니다  |

| 아예 안 적는 것 (미기재) |                 | 학생부에도 |
|-----------------|-----------------|-------|
| 1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 없습니다  |
| 2               | 청소년단체활동         | 없습니다  |
| 3               | 소논문             | 없습니다  |

위 표의 첫 줄을 특히 보십시오. 수상경력이 대입에 안 갑니다. 교내상만 적히는 칸인데, 그 교내상마저 대학에는 안 보냅니다.

그리고 독서활동도 안 갑니다. 책 목록을 채우는 일에 시간을 쓰고 계시다면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봉사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만 대입에 반영된다

출처: 위와 같음. 이 표는 대입 기준입니다. 고입과 취업은 보는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10 · 그러면 무엇이 남나

남는 칸이 무거워집니다

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를 보시겠습니다.

| 대입에 가는 칸         | 무게                      |
|------------------|-------------------------|
| 교과 성적            | 등급과 성취도                 |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가장 큼니다 — 과목마다 500자      |
| 창의적 체험활동<br>특기사항 | 자율·자치 / 동아리 / 진로 각 500자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300자                    |
| 출결               | 미인정 결석이 있으면 읽힙니다        |

둘째 줄이 이 표의 결론입니다. 실적으로 채우던 칸이 다 빠지고 나면 세특이 가장 무거워집니다.

세특은 과목마다 있으니 수가 많고, 수업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바깥에서 사 올 수 없습니다.

이 변화의 방향

바깥 실적을 빼고 학교 수업 안으로 모은 것입니다. 대회·자격증·독서 목록처럼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차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할까」 보다 「수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가 실제 물음이 됐습니다.

출처: 위와 같음. 대학이 각 칸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대학·전형마다 다릅니다 — 모집요강의 서류평가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 11 · 그래서 무엇을

## 헛수고를 줄이는 법

| 이런 일을<br>하고 계시면    | 다시 보십시오                       |
|--------------------|-------------------------------|
| 교내 대회 수상을<br>노리는 것 | 대입에 안 갑니다                     |
| 독서 목록을<br>채우는 것    | 안 갑니다 — 다만 <b>세특에 녹으면</b> 갑니다 |
| 자격증을 따는 것          | 안 갑니다 (직업계고 NCS는 별도)          |
| 자율동아리를 만드는<br>것    | 안 갑니다                         |
| 개인 봉사를<br>채우는 것    | 안 갑니다 — <b>학교 계획 봉사</b> 는 갑니다 |

둘째 줄에 길이 있습니다. 독서활동 칸은 안 가지만, 읽은 책이 수업 발표나 탐구로 이어져 세특에 적히면 그건 갑니다.

책을 읽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목록을 채우는 것과 읽고 무언가 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미기재 와 미반영 의 차이를 아는가
- ☐ 수상경력이 대입에 안 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독서활동이 안 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안 가는 칸에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가
- ☐ 세특이 가장 무겁다 는 것을 아는가
- ☐ 세특이 과목마다 있는지 확인했는가
- ☐ 읽은 책이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 ☐ 봉사가 학교 계획 에 따른 것인가

넷째가 이 편의 이유입니다. 안 가는 칸을 채우느라 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표를 보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로 읽지는 마십시오. 빠진 것은 「따로 만들 수 있는 실적」이고, 남은 것은 「수업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리가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옮겨간 자리는 돈으로 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저희는 그게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 12 · 자주 묻는 것

## 대입 반영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상을 받아도 정말 아무 소용이 없나요?**

대입 전형자료로는 안 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이외의 어떤 칸에도 적을 수 없습니다. 창체 특기사항에도, 세특에도, 행특에도 안 됩니다. 「대회」라는 낱말 자체를 다른 칸에 못 씁니다.

그러니 「상은 못 적어도 대회 준비 과정은 적어 주세요」도 안 됩니다. 시상 계획이 있는 교내대회는 준비 과정과 참가 사실까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회와 무관하게 한 탐구라면 그건 세특에 적힐 수 있습니다. 같은 공부라도 「대회 때문에」가 아니어야 합니다.

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준비하며 배운 것은 남습니다. 다만 입시 자료로는 안 쓰입니다.

**Q. 그럼 학종이 불리해진 건가요?**

학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방향은 뚜렷합니다.

바깥에서 실적을 만들 수 있던 학생에게는 불리해졌습니다. 대회·자격증·해외활동 같은 것으로 채우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학교 수업을 성실히 한 학생에게는 유리해졌습니다. 남은 칸이 전부 수업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학종은 돈 있는 집이 유리하다」는 말이 예전만큼 맞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 수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는 예전보다 좁아졌고, 좁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였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수상·독서·자격증·자율동아리·개인봉사는 대입에 안 갑니다. 남는 것은 성적과 세특, 창체 특기사항, 행동특성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전형마다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 모집요강의 서류평가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13 · 먼저 사실부터****모든 학생이 받습니다**

「세특은 특별한 아이만 적어 주는 것 아닌가요?」 가장 많이 받는 오해입니다. 규정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학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학생에 대해서만 입력한다(제7항)**

|      | 중학교                     | 고등학교      |
|------|-------------------------|-----------|
| 누구에게 | 특기할 만한 과목·학생만           | 모든 학생이 원칙 |
| 분량   | 과목마다 500자 · 개인별 세특 500자 |           |

그래서 「우리 아이 세특이 있나」가 아니라 「무엇이 적혀 있나」가 물음이 됩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500자입니다. 한 학기에 여덟 과목을 들으면 여덟 칸이 생깁니다. 학생부에서 가장 자리가 많은 칸입니다.

**무엇을 적게 되어 있나**

규정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 제6항)**

낱말 둘을 보십시오. 「성취수준의 특성」과 「학습활동 참여도」. 성적이 아니라 어떻게 배웠는가를 적는 칸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5조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14 · 적을 수 없는 것

규정이 막아 둔 자리

세탁에 못 적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규정이 막아 둔 것입니다.

| 못 적습니다         | 규정                         |
|----------------|----------------------------|
| 수상 사실          | 수상경력 이외의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
| 「대회」라는 낱말      | 수상경력을 뺀 다른 항목에 쓸 수 없습니다    |
| 대회 준비 과정·참가 사실 |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소논문            | 기재 금지                      |
|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    | 미기재                        |
| 교외 활동·학원       | 학교 교육과정 밖은 적히지 않습니다        |

둘째·셋째 줄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상은 못 적어도 준비한 것은 적어 주시면 안 되나요」가 안 되는 까닭입니다. 다만 대회와 무관하게 한 탐구라면 적힐 수 있습니다. 같은 공부라도 「대회 때문에」라는 틀이 붙으면 못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못 합니다

사용자(교사)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해야 한다(제4조 제2항).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안을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학생이 써서 드리는** 것은 규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본 것을 적는 칸**입니다.

다만 수업에서 한 것을 선생님이 알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릅니다 — 그건 **학생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4조·제9조 및 기재요령 유의사항. 세부 운영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릅니다.

15 · 비교 칸

작은데 크게 읽힐 수 있습니다

세특 옆에 「비교」라는 작은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히는 것을 아는 분이 드뭅니다.

| 무엇이 적히나         | 뜻                       |
|-----------------|-------------------------|
| 공동교육과정          | 우리 학교에 없어 다른 학교에서 들은 과목 |
| 온라인학교 · 학교 밖 교육 | 다른 경로로 이수한 과목           |
| 미이수             | 이수 기준을 못 채운 과목          |
| 대체이수 · 재이수      | 다시 듣거나 대체한 과목           |

첫째 줄이 실제로는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찾아 들었다는 기록**이니까요.

셋째 줄은 반대입니다. **미이수가 여기 남습니다**. 앞의 제도 편(F8)에서 다룬 그 자리입니다.

고교학점제와 이어집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과목을 골라 듣게 되면서 「무엇을 들었는가」가 학생부에 더 뚜렷이 남습니다.

세특은 그 과목에서 무엇을 했는가이고, 비교는 그 과목을 어떻게 들었는가입니다. 둘이 함께 읽힙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5조 제5항. 비교 기재는 학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6 · 그래서 무엇을 학기마다 볼 것

| 차례 | 무엇을                | 언제   |
|----|--------------------|------|
| 1  | 과목마다 세특이 있는지 쟁니다   | 학기 끝 |
| 2  | 내용이 과목마다 다른지 봅니다   | //   |
| 3  | 아이가 기억하는 일인지 물어봅니다 | //   |
| 4  | 비고 칸을 봅니다          | //   |

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이 다른데 세특 내용이 비슷하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드러난 것이 적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과목에서 무엇을 드러낼지를 같이 생각해 보실 자리입니다.

### 세특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받는다 는 것을 아는가

☐ 과목마다 500자 인 것을 아는가

☐ 들은 과목에 빠짐없이 있는가

☐ 내용이 과목마다 다른가

☐ 아이가 기억하는 일 인가

☐ 수상·대회 가 적힐 수 없다는 것을 아는가

☐ 비고 칸 을 본 적이 있는가

☐ 학생부에 학원·교외 활동 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다섯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기억 못 하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그건 면접에서 답이 안 됩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세특을 「선생님께 부탁드릴 것」으로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선생님이 본 것을 적는 칸」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부탁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신 수업에서 보일 수 있는 자리는 학생에게 열려 있습니다 — 질문, 발표, 과제, 실험. 거기서 만들어진 것만 적힙니다.

## 17 · 자주 묻는 것

## 세특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세특이 비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문제인가요?**

먼저 학교에 확인해 보십시오.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라 비어 있으면 이유가 있거나 누락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양 교과처럼 이수 여부만 적는 과목이 있고, 학교 사정으로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이라면 그 학년이 끝나기 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학년도가 지나면 고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L7에서 다룹니다).

묻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왜 안 적어 주셨나요」가 아니라 「비어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가 낫습니다. 누락일 수도 있고 규정상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Q. 세특 내용이 짧고 뻥합니다. 불리한가요?**

길이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500자를 다 쓴 세특이 짧은 세특보다 낫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보실 것은 구체성입니다. 「성실히 참여함」과 「○○ 단원에서 △△가 왜 그런지 묻고 자료를 찾아 발표함」은 같은 길이라도 읽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쓰려면 구체적인 일이 있어야 합니다. 글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에서 있었던 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세특이 뻥하다면 「어떻게 적어 달라고 할까」가 아니라 「다음 학기에 무엇을 해 볼까」로 가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게 규정이 의도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세특은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받는 칸**이고 **과목마다 500자**입니다. 수상과 대회는 적힐 수 없고, 수업에서 있었던 일만 적힙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운영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18 · 먼저 사실부터

세 칸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세 칸입니다 — 자율·자치 / 동아리 / 진로. 여기에 봉사활동 실적이 따로 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입에 안 가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 선부터 그어 두겠습니다.

| 칸               | 분량        | 대입    |
|-----------------|-----------|-------|
| 자율·자치활동<br>특기사항 | 500자      | 갑니다   |
| 동아리활동<br>특기사항   | 500자      | 갑니다   |
| 진로활동<br>특기사항    | 500자      | 갑니다   |
| 자율동아리           | —         | 안 갑니다 |
| 진로희망분야          | —         | 안 갑니다 |
| 개인 봉사활동<br>실적   | 건당<br>50자 | 안 갑니다 |
| 학교 계획<br>봉사활동   | 건당<br>50자 | 갑니다   |

맨 아래 두 줄의 차이가 큼니다. 봉사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만 대입에 반영된다

그리고 3학년은 자율·자치활동이 아니라 자율활동으로 적는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 19 · 세 칸이 다릅니다

# 무엇이 어디에 적히나

| 칸     | 어떤 일이 여기 적히나                  |
|-------|-------------------------------|
| 자율·자치 | 학급·학교 행사, 자치 활동, 학교가 계획한 프로그램 |
| 동아리   | 정규 동아리에서 한 활동                 |
| 진로    | 진로 탐색·상담·체험, 진로 관련 수업 밖 활동    |

둘째 줄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 정규 동아리는 특기사항이 적히고 대입에도 갑니다.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안 갑니다.

그러니 「동아리를 하나 만들자」는 계획은 지금 제도에서는 값이 크지 않습니다. 정규 동아리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남는 자리입니다.

## 진로 칸의 쓰임이 달라졌습니다

진로희망분야는 대입에 안 갑니다. 「장래희망: 의사」 같은 한 줄은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갑니다. 무엇을 희망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 봤는가가 남는 셈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일찍 못 정한 것이 예전만큼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한 것보다 알아본 과정이 적히는 칸이 되었으니까요.

출처: 위와 같음. 정규 동아리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20 · 봉사활동

가장 헛갈리는 자리

봉사만 따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헛수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 어떤 봉사인가               | 대입    | 어떻게 구분하나        |
|-----------------------|-------|-----------------|
|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것 | 갑니다   | 「(학교)」로 등록됩니다   |
| 학생이 개인으로 한 것          | 안 갑니다 | 1365·VMS 등으로 연계 |

「(학교)」라는 표시가 갈림길입니다. 학생부에서 그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는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실적만 적히고 건마다 50자입니다. 무엇을 느꼈는지를 적는 칸이 아닙니다.

그럼 개인 봉사는 헛것인가

대입 자료로는 안 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봉사에서 한 일이 진로활동이나 세특으로 이어지면 그건 갑니다. 실적 칸이 아니라 다른 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채우는 봉사」와 「무언가 하게 되는 봉사」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앞의 것은 지금 제도에서 값이 거의 없습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및 기재요령 봉사활동 항목,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실적 연계와 등록 방식은 학교가 안내합니다.

## 21 · 그래서 무엇을

## 세 칸을 채우는 법과 점검표

| 칸     | 무엇에 마음을 쓰나               |
|-------|--------------------------|
| 자율·자치 | 맡은 역할과 거기서 한 일           |
| 동아리   | 정규 동아리에서 이어서 한 것         |
| 진로    | 희망 직업이 아니라 <b>알아본 과정</b> |

둘째 줄의 「이어서」가 이 편의 핵심입니다. 한 번 한 것은 줄이 되고, 이어서 한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500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야기 쪽입니다.

## 창체 세 칸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세 칸이 다 채워져 있는가
- ☐ 칸마다 내용이 다른가
- ☐ 동아리가 정규 동아리 인가
- ☐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안 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봉사예 「(학교)」 표시 가 있는가
- ☐ 진로희망분야가 대입에 안 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진로 칸에 **알아본 과정** 이 적혀 있는가
- ☐ 이어서 한 활동이 **하나라도** 있는가

다섯째를 꼭 보십시오. 같은 시간을 봉사해도 「(학교)」가 아니면 대입에 안 갑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창체 세 칸은 「무엇을 더 했는가」를 적는 칸처럼 오래 읽혀 왔습니다. 그런데 따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차례로 빠지면서 지금은 「학교 안에서 무엇을 맡고 무엇을 이어 갔는가」의 칸에 가깝습니다. 활동을 늘리는 쪽보다 하나를 이어 가는 쪽이 이 세 칸에는 맞다고 봅니다.

## 22 · 자주 묻는 것

## 창체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동아리를 여러 개 하는 게 좋을까요?**

칸이 하나입니다.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500자.

여러 개를 하면 그 500자를 나눠 써야 합니다. 세 개를 하면 하나에 170자쯤입니다. 그 길이로는 무엇을 했는지 적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안 갑니다. 정규 동아리 하나에 자율동아리 둘을 더해도 대입에 가는 것은 정규 하나입니다.

그러니 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규 동아리 하나를 3년 이어 가는 쪽이 500자를 채우기에도 낫습니다.

다만 재미로 하는 것까지 말할 일은 아닙니다. 입시 계산으로 여러 개를 하지는 마시라는 뜻입니다.

**Q. 봉사 시간을 몇 시간 채워야 하나요?**

대입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 봉사 실적은 아예 안 갑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 이상」을 말하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채우는 봉사가 흔했습니다. 지금 그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가 정한 졸업 요건이나 시도교육청 기준은 별개로 있을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그건 대입이 아니라 학교 규정입니다.

그리고 대입에 안 간다고 봉사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시 때문에」 시간을 채우는 일은 지금 제도에서는 값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다른 데 쓰셔도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창체는 세 칸에 각 500자이고, 자율동아리·진로희망분야·개인봉사는 대입에 안 갑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 졸업 요건과 시도교육청 기준은 대입과 별개이니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23 · 먼저 사실부터

작아 보이는 칸 셋

세특과 창체에 가려 잘 안 보이는 칸이 셋 있습니다 — 독서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출결. 셋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사실상 안 쓰이고, 하나는 아주 짧고, 하나는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 칸              | 분량           | 대입    | 누가 적나    |
|----------------|--------------|-------|----------|
| 독서활동           | 공통<br>500자   | 안 갑니다 | 교과·담임 교사 |
| 행동특성 및<br>종합의견 | 300자         | 갑니다   | 담임교사     |
| 출결             | 특기사항<br>500자 | 갑니다   | 담임교사     |

세 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셋을 같은 무게로 보시면 시간을 잘못 쓰게 됩니다.

셋의 성격을 한 줄로 하면

독서는 공들여도 대입에 안 가는 칸입니다. 제목과 저자만 적히고, 그마저 전형자료로 안 보냅니다.

행동특성은 담임만 쓸 수 있는 칸이고 300자뿐입니다. 부모님이 손댔 자리가 거의 없는 대신, 담임이 아이를 아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출결은 유일하게 「잘못되면 나쁜」 칸입니다. 나머지 둘은 비어 있어도 크게 잃지 않지만, 여기는 남으면 잃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쓸 곳은 셋째뿐이라는 것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8조·제15조의3·제16조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24 · 독서 활동

제목과 저자뿐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칸입니다. 규정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 규정   |                                                            |
|------|------------------------------------------------------------|
| 누구에게 |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별·개인별로 학기 단위 입력(제15조의3 제1항) |
| 무엇을  |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제2항)               |
| 대입   | 미반영 — 2024학년도 대입부터                                         |

둘째 줄을 보십시오. 감상이나 느낀 점은 적히지 않는다. 제목과 저자뿐이고, 그마저 대입에 안 간다.  
그러니 「독서록을 열심히 써서 제출하면 학생부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은 제목과 저자뿐입니다.

그럼 책을 안 읽어도 되나

그 반대입니다. 다만 가는 길이 다릅니다.

독서활동 칸은 대입에 안 가지만, 읽은 책이 수업 발표나 탐구로 이어지면 세특에 적히고, 그건 갑니다.  
목록을 채우는 독서와 무언가 하게 되는 독서가 제도상 완전히 갈리는 자리입니다. 앞의 것은 지금 값이 없고, 뒤의 것은 값이 큼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 대상」이라 모든 학생이 받는 칸도 아니고, 비어 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특처럼 「모든 학생에게」가 원칙인 칸과 다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5조의3 및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 25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300자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제16조)

그리고 분량이 300자입니다.

한 해를 관찰하고 300자다. 담임이 아이를 얼마나 볼 수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칸이다.

300자가 얼마나 짧은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 문단 두 개 정도입니다. 한 해를 담아야 하는 칸이 그만합니다.

###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볼 수 있었는지가 이 칸에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장면이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그건 본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로 과목마다 반이 달라지면서 담임이 아이의 모든 수업을 보지 못합니다. 이 칸이 예전보다 쓰기 어려워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담임 선생님과 한 번은 이야기하십시오. 학기 초 상담이나 학부모 상담 주간이 그 자리입니다.

「잘 봐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담임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 만큼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6조 및 기재요령 최대 글자수 표. 상담 운영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 26 · 출결

## 사고가 나는 자리

셋 중 유일하게 「잘하면 좋은」 칸이 아니라 「잘못되면 나쁜」 칸입니다.

| 구분  | 어떻게 읽히나                 |
|-----|-------------------------|
| 질병  | 증빙이 있으면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 미인정 | 가장 무겁게 읽힙니다             |

수업일수 / 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 각각을 질병·미인정·기타로 나눠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적는다(제8조)

미인정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출석정지 · 교권보호 관련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출석정지 · 가정학습 기간.

그런데 실무에서 미인정이 되는 가장 흔한 까닭은 다른 데 있습니다. 증빙을 제때 안 낸 결석입니다.

### 그래서 이것만 하십시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결석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전자화문서로 인정되어 따로 원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서 빠졌으면 그날 안에 처리하십시오. 미루면 미인정으로 남고, 학년이 끝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질병과 미인정은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 증빙을 제때 내는 것이 이 칸에서 하실 일의 거의 전부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8조 및 기재요령 출결 처리 기준. 결석 인정 범위와 증빙 절차는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릅니다.

## 27 · 그래서 무엇을

## 점검표와 자주 묻는 것

## 세 칸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독서활동이 대입에 안 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독서 칸에 감상이 안 적힌다 는 것을 아는가
- ☐ 읽은 책이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 ☐ 행동특성이 300자 인 것을 아는가
- ☐ 담임 선생님과 한 번이라도 이야기 했는가
- ☐ 출결에 미인정 이 있는가
- ☐ 결석 증빙을 제때 내고 있는가
- ☐ 지각·조퇴가 쌓이고 있지 않은가

여섯째와 일곱째가 이 편에서 가장 실질적입니다. 다른 칸은 잘 못 채워도 손해가 크지 않지만, 출결은 남으면 손해가 큼니다.

## Q. 지각이 몇 번이면 문제가 되나요?

대입에서 몇 번이라는 기준을 공개한 대학은 드뭅니다. 그래서 숫자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종은 성실성을 보고, 출결은 거의 유일하게 숫자로 드러나는 성실성입니다. 다른 칸은 다 글인데 여기만 숫자입니다.

그리고 고입에서는 더 뚜렷합니다 — 학교에 따라 미인정 결석 1일에 감점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몇 번까지 괜찮은가」를 재기보다 「쌓이지 않게 하는 것」으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적히면 지울 수 없습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세 칸은 공들여도 크게 얻을 것이 없고, 놓치면 잃을 것이 있는 자리입니다. 독서 목록을 채우는 데 쓰실 시간이 있으면 **그 책으로 수업에서 무엇을 할지**를 보시고, **출결은 그날그날 처리**하십시오. **이 편에서 드릴 말씀은 사실상 그 둘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이 출결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 28 · 먼저 사실부터

# 규정이 막아 둔 것들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규정이 막아 둔 것**이고, 막아 둔 까닭도 분명합니다 —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소를 빼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   | 적을 수 없습니다   | 어디에                      |
|---|-------------|--------------------------|
| 1 | 교외 수상       | 수상경력 칸에 <b>교내상만</b> 적습니다 |
| 2 | 수상 사실       | 수상경력 <b>이외의 어떤 칸에도</b>   |
| 3 | 「대회」라는 낱말   | 수상경력을 뺀 <b>다른 칸 전부</b>   |
| 4 | 대회 준비·참가 사실 |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
| 5 | 소논문         | 기재 금지                    |
| 6 |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 | 미기재                      |
| 7 | 청소년단체활동     | 고등학교는 미기재                |

**3번과 4번이 특히 넓습니다.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입력할 수 없다.** 시상 계획이 있는 교내대회의 준비 과정·참가 사실도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하지 않는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9조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유의사항.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 29 · 왜 막았나

# 2011년부터의 흐름

한 번에 막힌 것이 아닙니다. 십수 년에 걸쳐 하나씩 빠졌습니다.

| 언제       | 무엇이                                |
|----------|------------------------------------|
| 2011학년도  | 교외상을 수상경력에서 뺐습니다                   |
| ~2023 대입 | 자율동아리 연 1개(30자) · 소논문 금지 · 방과후 미기재 |
| 2024 대입~ | 수상경력·독서·자격증·자율동아리·개인봉사 대입 미반영      |

방향이 하나입니다. 학교 밖에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것을 차례로 뺐습니다.

규정에 그 까닭이 적혀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

## 그래서 지금 남은 것

남은 것은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뿐입니다. 수업, 정규 동아리, 학교가 계획한 활동, 담임이 본 것.

이건 돈으로 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제도가 그 방향으로 움직였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전히 평평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수업과 프로그램이 다르니 차이는 남습니다. 다만 개인이 돈으로 메우던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9조 해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 흐름에 대한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30 · 그러면 이건 되나

자주 걸리는 열 가지

| 이런 것                | 되나       | 왜                    |
|---------------------|----------|----------------------|
|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 칸엔<br>적함 | <b>대입엔 안 갑니다</b>     |
| 대회 준비하며 공부한 내용을 세특에 | ×        | 준비 과정도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
| 대회와 무관하게 한 탐구를 세특에  | ○        | 수업 안의 일이면 됩니다        |
| 학원에서 배운 것을 수업에서 발표  | ○        | <b>발표한 사실</b> 이 적힙니다 |
| 학원 이름·강의 이름         | ×        | 교외 기관은 안 적힙니다        |
| 공인어학 점수             | ×        | 사교육 유발 요소입니다         |
| 교외 봉사(개인)           | 칸엔<br>적함 | <b>대입엔 안 갑니다</b>     |
| 학교 계획 봉사            | ○        | 「(학교)」로 등록됩니다        |
| 정규 동아리 활동           | ○        | 특기사항 500자            |
| 자율동아리               | 칸엔<br>적함 | <b>대입엔 안 갑니다</b>     |

넷째 줄에 길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배웠어도 그것을 수업에서 쓰면 적힙니다. 적히는 것은 학원이 아니라 수업에서 한 일입니다.

출처: 위와 같음. 구체적인 판단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담당 교사에 따릅니다 — 애매하면 학교에 물어보십시오.



## 31 · 그래서 무엇을

## 부탁하지 말 것과 할 수 있는 것

| 부탁하지 마십시오          | 대신 이렇게               |
|--------------------|----------------------|
| 「상 받은 것 좀 적어 주세요」  | 그 공부를 수업에서 이어 가게 합니다 |
| 「이렇게 적어 주세요」 (문안)  | 수업에서 보이게 합니다         |
| 「학원에서 한 것도 넣어 주세요」 | 수업에서 발표·질문으로 씁니다     |
| 「분량 좀 늘려 주세요」      | 적힐 만한 일을 만듭니다        |

왼쪽 칸은 규정이 막아 둔 부탁입니다.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고, 들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른쪽 칸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교외상이 안 적힌다 는 것을 아는가
- ☐ 수상 사실을 다른 칸에 못 쓴다 는 것을 아는가
- ☐ 「대회」라는 낱말이 다른 칸에 못 들어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공인어학 점수 가 안 적힌다는 것을 아는가
- ☐ 학원 활동 이 안 적힌다는 것을 아는가
- ☐ 안 되는 것을 부탁하고 있지 않은가
- ☐ 배운 것을 수업에서 쓰고 있는가
- ☐ 봉사가 「(학교)」 인가

여섯째를 조심하십시오. 규정이 막아 둔 것을 부탁하시면 선생님과 관계만 상합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편을 읽고 「그럼 사교육이 쓸모없다는 말인가」로 읽지는 마십시오. 학원에서 배운 것이 수업에서 드러나면 그건 적힙니다. 막힌 것은 「바깥에서 만든 실적을 그대로 옮겨 적는 길」이지 바깥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배운 것을 학교에서 쓰게 하십시오 — 그게 지금 제도에서 유일하게 남는 길입니다.

## 32 · 자주 묻는 것

## 기재 금지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그럼 교내 대회는 나가지 말아야 하나요?**

입시 자료로는 값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수상경력 칸은 대입에 안 가고, 준비 과정도 다른 칸에 못 적습니다. 학생부 쪽으로는 남는 것이 없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며 공부한 내용은 아이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수업에서 쓰면 그건 세특에 적힐 수 있습니다  
— 대회와 연결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니 「학생부 때문에 나간다」면 안 나가셔도 되고, 「하고 싶어서 나간다」면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다른 학교는 다 적어 준다던데요?**

규정은 전국이 같습니다. 교육부훈령과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만든 기재요령이 정본입니다.

그러니 「그 학교는 적어 준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감사 대상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일을 다르게 적을 수는 있습니다. 「○○ 대회에서 수상함」은 안 되지만 「○○를 주제로 탐구하여 발표함」은 됩니다. 사실이 같아도 틀이 다르면 적힐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저 학교는 적어 준다」로 들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학교 이야기보다 우리 학교 규정을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바깥에서 만든 실적은 적히지 않습니다. 막힌 것은 옮겨 적는 길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니, 배운 것을 수업에서 쓰게 하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 판단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릅니다.

33 · 먼저 사실부터

학년도가 끝나면 막힙니다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 학년도 종료일. 규정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언제            | 고칠 수 있나                     |
|---------------|-----------------------------|
| 학년도 안         | 비교적 쉽습니다 — 담당 교사가 확인하고 고칩니다 |
| 학년도가 끝난 뒤     |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 그 뒤에도<br>고치려면 | 객관적 증빙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규정의 예외 조항은 이렇습니다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제2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입니다. 기억이나 주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년이 끝나기 전에 봐야 합니다 — 끝나고  
나면 증빙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9조(자료의 정정)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자료의 정정」.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 34 · 그러니 달력이 이렇게 됩니다

### 학기마다 한 번

| 시기   | 무엇을               | 왜 그때          |
|------|-------------------|---------------|
| 7월 말 | 1학기 학생부를 봅니다      |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
| 12월  | 2학기 것을 봅니다        | 학년도가 끝나기 전    |
| 1~2월 | 고칠 것이 있으면 이때가 마지막 | 종료일이 지나면 막힙니다 |
| 그 뒤  | 증빙과 위원회 심의        | 어려워집니다        |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이 편의 실무입니다. 겨울방학에 한 번 보시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 무엇을 볼 것인가

「잘 쓰였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이 판단하기 어렵고, 판단하셔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볼 것은 둘입니다.

|   | 무엇을      | 왜                     |
|---|----------|-----------------------|
| 1 | 비어 있는 칸  | 누락일 수 있습니다            |
| 2 | 사실과 다른 것 | 증빙으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

2번이 정정의 대상입니다. 날짜가 틀렸다, 과목이 다르다, 안 한 활동이 적혀 있다 — 이런 것은 증빙으로 고칩니다.

반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정정 사유가 아닙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9조. 정정 절차와 서식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릅니다.

35 · 어떻게 말씀드리나

실제 절차

| 차례 | 무엇을                        |
|----|----------------------------|
| 1  |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적습니다 — 칸·날짜·내용 |
| 2  | 증빙을 모읍니다 — 확인서·안내문·사진·기록   |
| 3  |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
| 4  | 학교가 정정대장에 남기고 절차를 밟습니다     |

3번의 말씀 드리는 방식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 이렇게 말고        | 이렇게                              |
|---------------|----------------------------------|
|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 「여기가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
| 「이렇게 고쳐 주세요」  | 「증빙을 가져왔습니다」                     |
| 「다른 학교는…」     | 「규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선생님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절차를 밟는 일입니다. 정정대장에 남고 위원회를 거칩니다. 선생님께 부탁하는 일이 아니라 학교에 요청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락은 정정과 다릅니다. 안 적힌 것을 적는 것은 학년도 안이면 대개 간단합니다. 그래서 학년도 안에 보시라는 것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9조 및 별표 1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교마다 서식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 36 · 그래서 무엇을

## 학기마다 십 분과 점검표

학기마다 십 분이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 무엇을             | 얼마나 |
|---|-----------------|-----|
| 1 | 학생부 II 를 받습니다   | —   |
| 2 | 빈 칸을 씹니다        | 2분  |
| 3 | 아이에게 읽혀 봅니다     | 5분  |
| 4 | 사실과 다른 자리를 적습니다 | 3분  |

3번이 핵심입니다. 사실과 다른 자리를 가장 잘 찾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시다.

## 학기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학년도 종료 후에는 정정이 어렵다 는 것을 아는가
- ☐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부 II 를 보는가
- ☐ 빈 칸 이 있는가
- ☐ 아이가 읽어 봤는가
- ☐ 사실과 다른 자리 가 있는가
- ☐ 있다면 증빙 이 있는가
- ☐ 겨울방학 에 한 번 보기로 정했는가
- ☐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와 「사실이 다르다」 를 구분 하는가

여덟째가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다른 자리뿐입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학생부를 고3에 처음 펼치는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1·고2 것이 이미 잠겨 있습니다. 이 편에서 드릴 말씀은 사실 한 줄입니다 — 학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보십시오. 십 분이고, 그 십 분이 나중에 못 하는 일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 37 · 자주 묻는 것

## 확인과 정정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이미 졸업했는데 잘못된 게 있습니다. 고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무겁습니다.

규정은 학년도 종료 후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증빙이 있는지 보십시오. 증빙 없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졸업한 학교에 연락해 절차를 물어보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학생부는 준영구 보존이고 졸업 후 8년은 학교가 보관합니다.

다만 대입이 이미 끝났다면 실익이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기록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해 볼 만합니다.

**Q. 선생님께 확인해 달라고 하면 미움받지 않을까요?**

사실 확인은 선생님께도 필요한 일입니다.

학생부는 감사 대상이고, 잘못 적힌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선생님도 곤란해집니다. 학년도 안에 바로잡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내용 요구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세요」, 「더 길게 써 주세요」 — 이건 규정이 막아둔 자리라 선생님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러니 둘을 갈라서 말씀하십시오. 「사실이 다른 것 같습니다」는 언제든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써 주세요」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구분만 지키시면 관계가 상할 일이 없습니다.

## 한 줄로 남기면

학년도가 끝나면 정정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학기마다 십 분, 사실이 다른 자리만 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정 절차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38 · 한 눈에

# 3년이 어떻게 쌓이나

학생부는 3년 동안 같은 칸이 세 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년마다 볼 자리가 다릅니다. 고1은 틀을 만드는 해, 고2는 깊어지는 해, 고3은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 학년 | 이 해의 일      | 놓치면             |
|----|-------------|-----------------|
| 고1 | 칸을 비우지 않는 것 | 3년 중 하나가 빕니다    |
| 고2 | 이어서 하는 것    | 줄만 남고 이야기가 없습니다 |
| 고3 |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 |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

가운데 줄이 가장 값이 큼니다. 한 번 한 것은 줄이 되고 이어서 한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500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야기 쪽입니다.

## 이 편의 쓰임

앞의 일곱 편에서 칸마다 확인하실 것을 드렸습니다. 이 편은 그것을 학년으로 다시 갈라 모은 것입니다. 지금 학년의 칸만 보셔도 됩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 39 · 학년별 점검표

## 고1과 고2

## 고1 — 여덟 가지

- ☐ 학생부 II 를 한 번이라도 받아 봤는가
- ☐ 세특이 들은 과목마다 있는가
- ☐ 창체 세 칸 이 다 채워져 있는가
- ☐ 정규 동아리 를 정했는가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안 갑니다)
- ☐ 출결 에 미인정이 없는가
- ☐ 결석 증빙을 제때 내고 있는가
- ☐ 안 가는 칸( 수상·독서·자격증 )에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가
- ☐ 겨울방학에 한 번 볼 계획인가

둘째가 고1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비어 있으면 학년이 끝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고2 — 여덟 가지

- ☐ 고1에 한 것을 이어서 하고 있는가
- ☐ 세특 내용이 과목마다 다른가
- ☐ 아이가 기억하는 일 이 적혀 있는가
- ☐ 고른 과목이 진로와 이어지는가
- ☐ 비교 칸 (공동교육과정·미이수)을 봤는가
- ☐ 봉사가 「(학교)」 인가
- ☐ 담임 선생님과 한 번은 이야기했는가
- ☐ 학기마다 학생부를 보고 있는가

첫째가 고2의 전부입니다. 고2는 새로 시작하는 해가 아니라 이어 가는 해입니다.

## 40 · 학년별 점검표

## 고3과 마감

## 고3 — 여덟 가지

- ☐ 고1·고2 것을 다시 읽어 봤는가
- ☐ 3년치가 한 줄기로 읽히는가
- ☐ 사실과 다른 자리 가 없는가
- ☐ 있다면 증빙 이 있는가
- ☐ 면접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가
- ☐ 출결 이 3년치로 어떻게 보이는가
- ☐ 지원할 전형이 학생부를 어떻게 보는지 확인했는가
- ☐ 1학기 안에 확인을 마쳤는가

여덟째를 지키십시오. 수시 원서는 9월이고, 그때 학생부는 이미 넘어갑니다.

## 3년 내내 같은 것

|   | 무엇을       | 왜                   |
|---|-----------|---------------------|
| 1 | 수업에서 드러내기 | 남는 칸이 전부 수업 안에 있습니다 |
| 2 | 하나를 이어 가기 | 이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
| 3 | 학기마다 확인하기 | 학년도가 끝나면 막힙니다       |

이 셋은 학년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도 잘 안 바뀌는 것들입니다.

출처: 위와 같음. 전형별 반영 방식은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하십시오.

41 · 한 장으로

무엇이 가고 무엇이 안 가나

| 대입에 갑니다                    | 안 갑니다      |
|----------------------------|------------|
| 교과 성적                      | 수상경력       |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br>(과목마다 500자) | 독서활동       |
| 창체 세 칸 특기사항<br>(각 500자)    | 자격증 및 인증   |
| 행동특성 및<br>종합의견 (300자)      | 자율동아리      |
| 출결                         | 개인 봉사활동 실적 |
| 학교 계획 봉사                   | 진로희망분야     |

왼쪽이 시간을 쓸 자리이고, 오른쪽은 아닙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19-11-28)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졸업생 포함)

그리고 왼쪽은 전부 학교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표가 이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여덟 편을 다 읽으셨다면 학생부에 대한 불안이 조금은 줄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에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학생부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 이라는 것입니다. 수업에서 한 일이 남고, 이어서 한 일이 이야기가 되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굳습니다.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셋째뿐이고, 그건 십 분이면 됩니다.

## 42 · 자주 묻는 것

## 학년별 준비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고1인데 벌써 진로를 정해야 하나요?**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제도가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로희망분야는 대입에 안 갑니다. 「장래희망: ○○」 한 줄은 대학에 보내지 않습니다.

가는 것은 진로활동 특기사항입니다 — 무엇을 희망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알아봤는가가 적히는 칸입니다.

그러니 고1에 필요한 것은 결정이 아니라 탐색입니다. 여러 개를 건드려 보고 그중 하나가 고2로 이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다만 과목 선택은 고1 가을에 해야 합니다. 진로를 못 정했다면 열어 두는 쪽으로 고르십시오 — 안 들으면 되돌리기 어렵고, 들었다 안 쓰면 잃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Q. 전학을 가면 학생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원적교가 재학 당시까지의 학생부 전산자료를 전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합니다.

그러니 전학 간다고 앞의 기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출결도 학년 안에서는 전·후를 합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전학 시기가 학기 중이면 그 학기 세특이 어느 학교에서 적히는지가 갈립니다. 짧게 다닌 학교에서는 적을 내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달라 이수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이게 더 까다로워집니다 — 전학 전에 두 학교의 개설 과목을 비교해 보십시오.

학적과 내신 쪽은 따로 다룬 편(G6)이 있습니다.

## 한 줄로 남기면

고1은 비우지 않고, 고2는 이어 가고, 고3은 확인합니다. 그리고 3년 내내 같은 것은 수업에서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형별 반영 방식은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하십시오.

## 43 · 달으며

# 한 줄로 남기면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학생부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입니다. 수업에서 한 일이 남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굳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적힌 것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요강을 읽는 일, 달력에 날짜를 찍는 일, 등급을 다시 계산해 보는 일 — 대부분 집에서 하실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해 보신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으실 때, 그때 저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런 질문에는 저희가 값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인쇄하셔도 되고, 파일로 보내셔도 되고, 학교나 모임에서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같은 시기를 지나는 다른 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고르게 퍼지는 것이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 입시CUBE

이 책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학교·대학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대학의 최신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책은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